



보도시점 2025.12.23.(화) 16:30
(2025.12.24.(수) 조간)

배포 2025.12.23.(화) 11:30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쿠팡 사태 범부처 TF 가동
-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 논의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이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TF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였다. 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하였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2.18)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책임자	과장	최광기 (044-202-6460)
		담당자	사무관	이웅비 (044-202-6425)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종일 (044-202-8870)
		담당자	서기관	윤현욱 (044-202-8873)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장	최정원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마철훈 (044-201-415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책임자	과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서기관	배주형 (044-204-78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2-2100-3121)
		담당자	사무관	장석인 (02-2100-315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장	최충호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상목 (02-2110-152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서기관	김영민 (02-2100-2573)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2-2100-2979)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사팀	책임자	팀장	김재진 (044-200-4479)
		담당자	사무관	이동은 (044-200-447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책임자	과장	주진화 (02-3150-0053)
		담당자	계장	이승운 (02-3150-3071)

□ 개 요

- (목적)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 및 의혹 해소를 위해 구성된 ‘쿠팡 사태 범부처TF*’ 운영방향 논의
 - *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관계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침해사고 조사 및 조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 논의(과기장관회의, 12.11)
- (일시/장소) '25.12.23(화) 16:30~17:30 / 정부서울청사 1012호-1회의실
- (참석자) 과기정통부 2차관, 과기정통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개인정보위·방미통위·금융위·공정위·국정원·경찰청 담당 국장
- (주요 논의내용) ▲쿠팡 침해사고 대응 경과, ▲범부처 TF 구성·운영방향, ▲부처별 대응현황 등

□ 세부 일정(안)

※ 차관님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30~16:35('5)	○ 차관님 모두말씀	
16:35~16:40('5)	○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경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16:40~16:45('5)	○ 범부처 TF 구성·운영 방향	
16:45~17:30('45)	○ 부처별 대응현황 발표 및 논의	참석자 전원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입니다.
이번 쿠팡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음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하여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즉각 가동하였습니다.

TF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